강원 절터서 나온 불교유산을 만나다

국립춘천박물관 새 상설관 개관
'강원 불교미술' 브랜드화 '눈길'
흥전리, 선림원지 등 발굴 유물
불교문화유산 30건 상설전시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부터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까지 강원 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11월 25일부터 상설전시실 브랜드2 '강원의 불교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을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상설전시실 브랜드2는 강원도 금강산·원주·평창·양양·삼척 등에서 발견된 불교공예품과 불교조각 30건 31점을 전시해 불교의 깨달음의 진리로 향해 가는 길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앞서 국립춘천박물관은 2019년 상설전시실 브랜드1 '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전시실은 불교공예품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구로서의 기능과 보살상과 불상과 같은 불교조각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미술품으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전달한다.

전시는 제1부 '불교공예-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구'와 제2부 '불교조각-보살과 부처, 깨달음의 형상'으로 나뉜다. 특히 상설전시실 브랜드2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새로 소장되거나 새로운 기법으로 전시한 불교유산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삼척 흥전리사지 '청동정병' 2점과 극락에서 사는 가릉빈가 새 문양으로 장식된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6점이 국립춘천박물관에 처음 전시된다.

홍천 물걸리사지 '부처 얼굴 조각'은 얼굴 길이만 30㎝ 이상일 정도로 큰 철불의 일부이다. 2020년 국립춘천박물관은 3D 모델링 기법으로 불상의 얼굴 형상을 만들고 각 조각의 위치를 파악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각들을 처음으로 세워 전시함으로써 실제 불상 얼굴 모습을 추정하고 입가에 머금은 아름다운 미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물로 지정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1000년을 묻혀 있던 금동보살입상은 흙과 청동녹을 걷어 내고 제모습을 찾았다.

세밀한 용 문양 표현과 형태로 15세기 종으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 '유점사 종'에 양각된 범자(梵字) 40자의 의미를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주목했다. 해당 범자는 비밀스러운 주문인 진언으로 지옥을 깨트리는 긴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과 짧은 '파지옥진언', 관음보살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이다. 진언의 음과 뜻을 영상으로 만들어 지옥까지 종 소리를 울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종의 기능을 부각시켰다.

금강산에서 발굴됐다고 전해지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18.6㎝로 크기가 작으나 얼굴과 신체 표현, 귀걸이와 팔찌 같은 장신구 표현이 세밀한 수작이다. 전시에서는 뛰어난 조각 기법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보살의 이미지를 55인치 크기의 모니터로 제공한다.

AI 기술로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보물)을 금빛 찬란한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한 영상이 전시실에서 상영된다. 2015년 발굴 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와 국립춘천박물관이 보존처리를 하고 광배 편 위치를 맞추어 보살상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결손 부분을 채우고, 부식된 부분의 금빛을 되살렸다.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은 "2019년에 신설한 브랜드 1 '창령사 터 오백나한-나에게로 가는 길'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번 브랜드 2 '강원의 불교미술-깨달음을 찾는 길'은 부처가 무엇을 깨달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며, 깨달음의 세계는 어떠한지를 깊이 탐색하고자 했다"면서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보면서 마음의 고통과 마주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의 평온을 맞이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외불교는 지금

관혼상제 스님 파견 서비스
日불교계 '우려' 목소리 제기

관혼상제 사찰 맡기는 '단가' 약화
스님 파견 서비스 2010년경 시작
시장 확대에 상업화·평판 악화

관혼상제를 사찰에서 주로 진행하는 일본에서 '스님 파견 서비스'가 등장해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20일 일본 '교토신문'은 스님 파견 서비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일본은 집안 묘소와 제사를 특정 사찰에 대대로 위임하는 '단가(檀家)' 제도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근래 '사찰과 인연을 맺고 싶진 않지만, 관혼상제는 맡기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스님 파견 서비스는 2010년경 시작됐다. 담당 스님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의 법요를 봉행하면 이용자가 보시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기존의 단가 제도로 제도에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의 이용이 늘면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찰 측에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특히 기존의 마을 공동체와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면서 점점 단가에서 이탈하는 소위 '사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기적인 보시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암에서 호응이 높다. 파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단가가 생겼다는 사례도 있다.

교토신문 보도에 따르면 8년간 파견 서비스를 나가고 있는 한 스님은 "사실상 업체에서 책정한 보시금이 낮고, 업체 중개료가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여유 시간에 출가자로서 법요를 봉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교식 전통을 따르고 싶다는 사람들의 신심에 응할 수 있다는 보람도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스님들이 직접 파견 서비스 업체를 설립한 사례도 생겨났다. 스님이 설립한 업체는 지역과 종단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찰이 제휴를 맺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커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시금 할인 행사나 가격 비교 경쟁 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업체 운영 방식과 파견 스님의 자질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

교토의 한 사찰 주지로 파견 서비스에 등록한 스님은 "한 업체의 경우 마치 콜택시처럼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찰 소임을 맡고 있는 출가자라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견 방식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스님은 "이대로는 파견 스님의 자질을 신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한번 평판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불교계 전체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스님은 "파견요청 대부분이 장례식에서의 시다림이나 천도재, 기제사와 같은 상장례"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법한 법요가 아닌 상조회사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장례불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관혼상제에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상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교토신문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⑳ 탐(貪)

붓다는 탐욕·분노·어리석음을 '독'이라 하여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라 불렀다. 이는 다른 번뇌보다도 청정하고 밝은 생명력에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삼독 가운데 첫 번째는 '탐(貪)'이며, 우리가 흔히 '탐낸다'고 말하는 그 탐욕이다.

'탐(貪)'은 '지금'을 뜻하는 금(今)과 '재물'을 상징하는 패(貝)가 합쳐진 글자다. 인류 초기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사용되던 까닭에 패(貝)는 곧 재화를 의미한다. 지금 눈앞의 이익을 당장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욕의 본질이다. 〈설문해자〉에서도 "탐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라 하였다. 탐욕은 단순한 재물 욕심을 넘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 전체를 가리킨다.

貪

탐욕은 곧 '애착'이다. 권력·명예·재물·인기 등을 붙들고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집착이 탐욕의 모습이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자족하지 못하는 집착, 더 강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루셴카는 막내 알료샤에게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애착의 어리석음을 일깨운다. 악행을 일삼던 한 노파가 죽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천사가 그녀에게 "단 하나라도 선행을 한 적이 있다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 보겠다"라고 묻자, 노파는 예전에 자신의 텃밭에서 뽑은 양파 한 뿌리를 거지에게 준 일을 떠올린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느님은 "그 양파를 붙잡고 불바다를 빠져나오면 낙원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나 양파가 끊어지면 영원히 불바다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천사가 양파를 내밀자 노파는 점점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이 함께 살려 달라며 매달리자, 노파는 "이 양파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뿌리쳤고, 그 순간 양파는 뚝 끊어져 노파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지고 만다.

원효 대사는 〈발심수행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막는 이가 없어도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유혹하는 이가 없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온갖 욕락을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애착하면 지금 이 삶터가 지옥이요, 놓아 버리고 자족하면 삶은 곧 천당이고 극락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화순 불암사 주지〉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